

## 최고의 처세술

최 문경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다. 처세를 익혀야지.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라”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소주 한잔을 입에 털어 넣고 소주 보다 쓰디 쓴 악수를 나눈 후 헤어졌다. 그렇게 나는 해고 되었다.

원래 내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다. 법대에 입학했고 싱싱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청춘의 20대를 송두리째 사법시험 준비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낙방이라는 처참한 결과와 입영통지서 한 통이었다.

26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고 전역한 후 다시 세상에 던져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이었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등 불안과 공포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취업의 문을 통과하여 살아남기 위해 열을 올렸고 보이지 않은 연기들이 도서관을 가득 매웠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루한 존재였다. 취업 필수 스펙이라는 토익점수, 학점, 대외활동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고 경험도 기술도 없는 나이 많은 취업준비생 이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도 고시에 실패한 나이 많은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았고 매일을 울분과 좌절, 자책으로 하루하루에 기대었다.

그렇게 수십 번의 실패가 반복되던 어느 날, 정말 운 좋게도 죽을 힘을 다해 면접을 뚫어낼 수 있었고 나이 서른을 훌쩍 넘어 드디어 직장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높은 급여가 약속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세상에 드디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나는 감격했다. 회사에서는 나의 법 지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나는 앞으로의 밝은 미래와 포부를 꿈꾸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입사한 회사는 건설 컨설팅 회사였다. 건설

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법에 규정된 법적 등록기준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과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등록기준 이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이 없는 영세한 건설업자들에게 자본금을 높은 이자로 대여해주고 편법을 통해 예금거래실적을 증명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곧 업무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고민했다. 법을 준수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고자 했던 꿈과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다음 날 나는 사장에게 업무가 끝난 뒤 상담을 원한다고 말했고 사장과 나는 회사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의문을 모두 털어놓았고 사장은 순순히 진실을 대답해 주었다.

“불법과 편법의 차이를 아나? 우리는 편법을 해도 불법은 하지 않아. 돈 없는 사람한테 아무 담보 없이 돈도 빌려주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뭐가 잘못 되었다는 거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냐? 이게 네가 법을 공부하며 꿈꾸던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 아냐?”

사장은 적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고 나의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자기합리화였다. 건설법이 자본금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안정적인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건설공사를 하였을 때 부실공사와 임금미지급 등의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법을 옹호하고 자행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회는 병들고 영혼은 파괴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은 불법보다도 위험했다.

사장의 계속되는 회유를 거부한 나는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내가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처세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고. 약삭빠르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는 내게 악수를 청하며 생각이 바뀌면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험난한 세상을 좀 더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돌아오게 될

것 이라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며 나는 사장의 말을 곱씹었다.

처세. 사람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 정말 나는 처세가 부족한 것일까? 내일부터 나는 다시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가족들의 눈총 속에서 다시 이력서를 쓰고 합격 전화를 기다리며 울리지 않는 전화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며 하루하루 희망고문 속에서 내 존재가치를 다시금 의심하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차 들은 쌍쌍 눈에 불을 켜고 버스를 지나쳤다. 그 불빛들이 “바보, 바보”하며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실업자의 하루하루는 훨씬 가혹했다. 스펙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많은 나이는 어느 곳을 가도 질책의 대상이었다. 나는 이제 고작 서른을 넘겼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서류합격 마저 힘겹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누 집 자식은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보내준다더라 등등 부모님의 한숨과 푸념이 시작된 것이었다. 집 안의 자랑이었고 기대주였던 내가 이전 숨기고 싶은 창피한 천덕꾸러기로 바뀌고 있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사장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내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그래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생각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것일까?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밀려와 물끄러미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숫자버튼들이 어서 나를 눌러 달라고 몸부림 쳤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나고 취업에 대해 서서히 포기하고 있을 때 짬 뜻밖의 면접통보 전화가 왔다. 좀처럼 면접기회를 잡지 못했던 내게 조금은 다른 아침이 시작되었다. 정성스럽게 양복을 다림질하고 구두도 반질반질 닦아놓았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수십 번 연습했다. 회사의 인재 상, 주요사업, 예상 질문 분석 등도 전날 완벽하게 연습하고 암기했고 면접후기 또한 꼼꼼하게 챙겨두었다. 취업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회사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벌써부터 충성을 다짐했다. 취업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이라고 팔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면접 시작시간 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여 대기실에 착석하니 나와 같은 심정을 공유하고 있을 지원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쿵쿵 거렸다.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되었다. 3인 1조의 그룹면접.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에게 순서대로 칼 같은 질문을 쏟아냈고 그들은 멋지게 대답했다. 그에 비해 나는 잔뜩 얼어있었다. 너무 오랜만의 면접이라 말도 더듬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다. 간신히 꾸역꾸역 질문들을 힘겹게 넘겨 갈 때 가운데 있던 면접관 한 명이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업은 원가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하나는 법과 규정을 조금 어기는 대신 회사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로서 법과 규정을 지키는 대신 회사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책임자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방망이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다시 한 번 양심의 시험대에 올라야 했다. 사실 별 것 아니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말하면 되니까. 회사에 선택받는 상품이 되려면 사용가치가 높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회사에 꼭 걸맞은 상품이 되어야만 한다. 시종일관 당당하고 매끄럽게 답했던 다른 두 명의 지원자들은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 회사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증진하고 손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면접관들은 고객을 꼬덕였다. 그들은 마지막 면접질문까지 완벽한 처세술을 선보였다

문제는 나의 차례였다. 머리로는 답이 정해졌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망설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꼭 선택받고 싶었는데...사람이란 쉽게 바뀌지 않나 보다. 회사가 마음에 들어 하는 말을 하고 운 좋게 합격한다고 쳐도 앞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양심을 속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며 타협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 용기를 만들었다. 나는 행복해지기로 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기가스를 속이고 띄우지 않아야 할 배를 띄우며 독성물질이 들어간 살균제를 만들고 팔았던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단기적 이익에 집착했고 그 결과 훨씬 큰 재정적 손해와 사회적 비난을 빚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법 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어조로 힘주어 말했다. 면접관들은 잠시 생각에 잠겨 보인 듯 했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진 면접관이 착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나는 회사에게서 다시 한 번 선택받지 못한 불량상품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또 한 번 처세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생긴 용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싶었다. 그런데 며칠 후 나는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어졌다 확신했던 면접에 최종합격 한 것이었다.

기쁨과 환희에 찬 첫 출근일.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면접관을 마주쳤다. 그는 내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정직함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처세술을 익혀야 한다고.

아니.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처세와 양심은, 처세와 정직은 반대편에 있지 않다. 사장은 내가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확신한다. 인생의 고비마다 샛길을 찾는다면 반드시 방향을 잃을 것이라고. 최고의 처세술은, 최단의 지름길은 정직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